

유아의 자기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박근주** 서소정***

Determinants of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Focus on their
Playfulness,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Park, Geun Joo Seo, So Jung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자율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놀이성 및 자기조절력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4,5세 유아 126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결정력, 자기조절력은 교사가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설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담임교사가 유아에게 직접 질문하여 평정하였고, 유아의 놀이성은 연구자에 의해 현장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놀이성, 자기조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자기결정력,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seosojun@khu.ac.kr)

I. 서론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 추구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 능력으로, 이때의 행동은 직접적 행동 뿐 아니라 비행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이수영, 2012; Deci & Ryan, 1985). 자기결정력에 대한 대표적 정의로는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태도나 능력 또는 기술(Wehmeyer, 1997),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방향을 결정할 때 강제없이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Field & Hoffman, 1996), 환경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그리고 자기존중을 토대로 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내는 한 개인의 능력(Hoffman, 1984)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결정력은 학습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의지를 반영하는 능력으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귀인하는 정도를 가리킨다(이혜주, 2008; Deci & Ryan, 1985). 최근에는 자기결정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자기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에 적합하도록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성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능력(박지영, 2012; Whitman, 1990)인 의사결정력(decision making ability) 또는 과제를 선택하여 끝까지 수행하는 계획, 선택, 결정, 추진하기 등의 과정이 포함된 능력(나옥선, 2009)인 주도성(initiative) 등의 용어들이 내적 동기에 근거한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자기결정력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의 구성요소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need for autonomy), 유능성에 대한 욕구(need for competence), 관계성에 대한 욕구(need for relatedness)이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생득적인 욕구로 가정한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행동의 원인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윤인숙, 2012; Ryan & Deci, 2000).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영양분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인간이 심리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과 인지구조에서의 성장과 안녕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욕구들은 보편적인 것이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의 전 발달단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므로 학습결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삶에 대한 자기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여 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나 집중도, 긍정적인 감정 등에 효과적(임지현, 2007)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동전략이 높고(류가에, 2009), 무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결정력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이석영, 2009) 등 연령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결정력에 따른 학습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결정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유아 자신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시도 속에서 얻어지는 자신감은 일상 속에서도 유용한 사회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오숙현, 2005).

놀이성(playfulness)은 유아의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성향 내지는 태도(고윤지, 김명순, 2013; Barnett, 1991)로 정의되며, 개인의 내면적 태도인 놀이성에 따라 외현화되는 행동적 특성을 놀이라 한다. Barnett(1991)에 따르면 놀이성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등 5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체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보여주는 신체적 움직임, 유연성, 민첩성 등 운동기능 활동의 정도, 둘째, 사회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놀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래들과의 협력 및 친밀한 접촉, 놀이에서 보이는 주도적 역할 등 다른 유아들과 협동하며 놀이하는 정도, 셋째, 인지적 자발성은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하며, 창의적으로 놀잇감을 사용하는 정도, 넷째,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감정, 기쁨, 즐거움, 성취감 등의 정도, 다섯째, 유머 감각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농담하는 것을 즐기거나 혹은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허운선, 2006; Barnett, 1991). 놀이성에 따라 유아들이 보여주는 놀이 모습은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놀이라 할지라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놀이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탐색능력, 문제해결력, 인지능력, 자기조절력, 자율성 및 자존감, 학습적용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에(박지영, 2012) 자율적 선택에 의해 시도된 유아의 놀이는 자기결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자 연습의 장이 된다.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양한 상황 또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융통적,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며(Kopp, 1982), 자신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Derryberry & Rothbart, 1988)으로 정의된다. 자기조절의 구성요소는 주의조절(attention),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 그리고 충동성(impulsivity)이다(성수현, 2008). 주의조절(attention)은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극을 조직하고 만족을 지연함으

로써 여러 자극들 중에서 한 종류의 정보가 다른 종류의 정보에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실행기능에 목적을 둔 주의처리과정이다.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는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고 즐겁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정서, 급한 성격과 관련되며 반사회적 행동은 억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동성(impulsivity)은 반응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원하는 목적이나 사물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사회적 참조인이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강민주, 심미경, 2011).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 자기수용, 자기 확신, 자기 가치 등과 유사하게 지칭하는 자기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정의된다(홍영희, 2006). Harter(2006)는 자기존중감을 다섯 가지의 하위영역-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적 용모, 행동-에서 자기지각과 전반적 자기가치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자기가치 판단은 능력 평가가 아니며, 비록 다섯 가지 하위영역의 점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자아평가 구성요소임을 강조하였다(성수현, 2008).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할 뿐 아니라 책임감과 독립심, 자아개념이 높고 자신감이 높아 동기적, 학습적, 인지적인 면에서 스스로의 학습 및 행동을 통제 조절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류가애, 2009)에 비추어 볼 때 동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자기결정력과 자기조절력 사이에서 관계되어 있으며, 자기결정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 활용되어지는 주요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자기결정력의 자율성 추구를 위한 내면적 동기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관계는 물론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요인과의 자기결정력과의 총체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결정력과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자기결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이해 및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적 변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유아기부터 자연스러운 일상적 경험 속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둔 활동을 통해 자기결정력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유아의 자기결정력, 놀이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평가인증을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5곳, 7개 반에 재원 중인 만4~5세 유아 126명(평균 6.60세, $SD=.49$)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은 남아 71명(56.3%), 여아 55명(43.7%)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126)

변인		범주	빈도(명)	백분율(%)
유아의 사회인구적 특성	성별	남아	71	56.3
		여아	55	43.7
	연령	만4세	51	40.5
		만5세	75	59.5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기결정력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자기결정 검사(Wolman, Campeau, DuBois, Mithaug, & Stolarski, 1994)의 목적은 학생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평가와 교육적 전략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기결정 역량과 기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으며(Wolman et al., 1994) 이를 류숙렬(2002)이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분석해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자기결정

력 검사지는 교사용, 아동용, 부모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을 사용하여 교사가 관찰한 경험에 근거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연령은 유치원~21세까지이며 교사, 학생, 부모용 총 3가지 형태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 자기결정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결정 검사의 두 개 하위영역은 자기결정의 범주에 따라 역량과 기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항구성은 자기결정의 단계에 따라 생각, 행동, 조정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2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형식으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0점~150점이다. 이 때 높은 점수는 높은 자기결정력을, 낮은 점수는 낮은 자기결정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결정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결정 행동관련 지식(6문항) .90,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6문항) .90,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6문항) .91,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6문항) .97,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6문항) .97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

유아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참여하는 내면동기를 바탕으로 한 놀이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Lieberman(1977), Rubin외(1983), Rogers(1998)의 놀이성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형식으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5~225점이다. 4개 하위요인으로는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 몰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유아의 놀이성은 연구자가 자유선택시간을 활용하여 개별 유아들을 직접관찰 함으로써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주도적 참여(15문항) .95, 인지적 융통성(9문항) .94, 즐거움의 표현(6문항) .91, 자발적 몰입(5문항)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8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 & Pike (1984)가 개발한 '능력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그림도구(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PSPC)'를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가치, 관습을 고려하여 총 50문항의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로 제작, 고현경(2010)이 수정사용한 총 4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형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자아존중감 측정 그림자료를 보며 개별 유아에게 질문하면 유아는 자신에게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고른 후, 그 정도를 나타내는 동그라미에 다시 표시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0점~160점이며, 5개 하위요인으로는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가족수용, 정서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적 자아존중감(8문항) .85, 사회적 자아존중감(8문항) .88, 신체적 자아존중감(8문항) .72, 가족수용 자아존중감(8문항) .89, 정서적 자아존중감(8문항) .85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황미영(2008)이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통제력 평정표 (SCRS: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참고하여 이순규(1995)가 수정·보완, 이현민(1998)이 다시 설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유아에게 사용한 것이다. 총 33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형식으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3점~165점이다. 3개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통제, 충동성, 두 가지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충동적임을 의미한다. 이 때 자기조절력 검사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관찰한 경험에 근거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 조절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 통제(10문항) .87, 이중성(10문항) .84, 충동성(12문항) .82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12월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평가인증을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5곳, 7개반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각 반별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 1명당 15분씩 3회에 걸친 개별놀이를 관찰하여 놀이성 척도를 평정하였고, 경력이 있는 담임교사는 해당 유아의 관찰경험을 근거로 자기결정력과 자기조절력을, 그리고 그림카드를 통해 직접 질문하고 이로 인한 유아의 대답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설문지를 평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 결과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사용, 기술 통계치를 포함한 기초 분석 및 각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놀이성, 자기 결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기 결정력에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자기결정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유아의 놀이성이 독립변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하고, 둘째는 유아의 놀이성이 독립변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종속변인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자기결정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놀이성의 경우 전체 5점 만점에서 총 평균은 3.21($SD=1.07$)이었고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주도적 참여 2.99($SD=1.06$)이었고, 인지적 융통성 3.14($SD=1.16$), 즐거움의 표현 3.41($SD=1.18$), 자발적 몰입 3.31($SD=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유아는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는 놀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유아가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즐거움의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 조절의 경우 전체 5점 만점에서 총 평균은 3.52($SD=.52$)점이

있으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통제 3.65점($SD=.60$), 이중성 3.45점($SD=.57$), 충동성 2.53점($SD=.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유아들이 충동성은 낮게 나타나고, 자기 통제 능력은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전체 4점 만점에 총 평균은 3.65점($SD=.26$)이었으며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존중감 3.67점($SD=.29$), 사회적 자아존중감 3.56점($SD=.39$), 신체적 자아존중감 3.69점($SD=.33$),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3.71점($SD=.32$), 정서적 자아존중감 3.61점($SD=.33$)이었다. 이는 또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행동을 수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고, 가족에게 느끼는 행복감과 부모로부터 느끼는 애정과 관심에 대한 가족 수용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결정력은 전체 5점 만점에서 총 평균 3.92점($SD=.62$)이었고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자기 결정 행동관련 지식 3.72점($SD=.73$),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3.70점($SD=.71$),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 3.72점($SD=.71$),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31점($SD=.70$),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16점($SD=.88$)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유아들은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자기 결정 행동관련 지식과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의 순으로 높은 자기결정력을 보였다.

<표 2>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126$)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놀이성	주도적 참여	2.99	1.06	1.00	4.87
	인지적용통성	3.14	1.16	1.00	4.78
	즐거움의 표현	3.41	1.18	1.00	5.00
	자발적몰입	3.31	1.14	1.00	5.00
	총점	3.21	1.07	1.00	4.91
자기조절	자기통제	3.65	.60	2.30	4.78
	이중성	3.45	.57	2.30	4.80
	충동성	2.53	.57	1.25	4.00
	총점	3.52	.52	2.34	4.57
자아존중감	인지적 자아존중감	3.67	.29	2.50	4.00
	사회적 자아존중감	3.56	.39	2.63	4.00
	신체적 자아존중감	3.69	.31	2.63	4.00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3.71	.32	2.63	4.00
	정서적 자아존중감	3.61	.33	2.75	4.00
	총점	3.65	.26	2.80	4.00

	자기 결정 행동관련 지식	3.72	.73	2.00	5.00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3.70	.71	2.17	5.00
자기 결정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	3.72	.71	2.17	5.00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31	.70	2.50	5.00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16	.88	2.33	5.00
	총점	3.92	.62	2.50	5.00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자기결정력의 하위 요인들과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t-test*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 조절의 하위요인 중 자기통제($t=-3.13, p<.01$), 이중성($t=-2.54, p<.05$)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t=3.12, p<.01$)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만5세가 만4세보다 낮은 충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4.08, p<.01$).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전체점수($t=5.74, p<.01$) 및 하위요인 4가지 영역, 즉 사회적 자아존중감($t=5.34, p<.01$), 신체적 자아존중감($t=4.50, p<.01$), 가족수용 자아존중감($t=4.68, p<.01$), 정서적 자아존중감($t=5.65,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4세 유아가 만5세 유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기 결정력은 전체 점수($t=3.05, p<.01$) 및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t=5.24, p<.01$),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t=4.8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 유아가 만5세 유아보다 더 많은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성별,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놀이성, 자기결정력의 차이 (N=126)

		성별				<i>t</i>	연령				
		남아 (N=71)		여아 (N=55)			만4세 (N=51)		만5세 (N=75)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놀이성	주도적 참여	2.89	.99	3.12	1.14	-1.18	3.03	.99	2.97	1.11	.32
	인지적용통성	3.04	1.16	3.27	1.16	-1.10	3.12	1.06	3.16	1.23	-.18
	즐거움의 표현	3.48	1.12	3.33	1.27	.67	3.47	1.05	3.38	1.27	.42

	자발적몰입	3.33	1.16	3.27	1.12	.30	3.36	1.03	3.27	1.21	.42
	총점	3.19	1.03	3.25	1.12	-.32	3.24	.96	3.19	1.14	.26
자기 조절	자기통제	3.51	.63	3.84	.52	-3.13**	3.60	.51	3.69	.66	-.86
	이중성	3.34	.57	3.59	.53	-2.54*	3.34	.58	3.53	.55	-1.91
	충동성	2.67	.53	2.36	.57	3.12**	2.77	.55	2.38	.52	4.08**
	총점 ¹⁾	3.39	.52	3.69	.48	-3.27**	3.39	.50	3.62	.52	-2.45*
자아 존중 감	인지적 자아존중감	3.67	.28	3.68	.31	-.03	3.72	.25	3.65	.32	1.40
	사회적 자아존중감	3.59	.39	3.52	.38	1.09	3.76	.28	3.42	.40	5.34**
	신체적 자아존중감	3.70	.34	3.67	.28	.58	3.83	.20	3.59	.34	4.50**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3.72	.33	3.69	.31	.40	3.86	.24	3.60	.33	4.68**
	정서적 자아존중감	3.61	.36	3.61	.30	-.07	3.79	.24	3.49	.33	5.65**
	총점	3.66	.27	3.63	.26	.54	3.79	.16	3.55	.27	5.74**
자기 결정 력	자기 결정 행동관련 지식	3.63	.73	3.83	.71	-1.57	3.80	.66	3.66	.77	1.08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3.63	.73	3.79	.69	-1.23	3.75	.68	3.67	.74	.59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	3.69	.71	3.75	.72	-.54	3.80	.74	3.66	.69	1.06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35	.67	4.25	.73	.78	4.67	.51	4.06	.71	5.24**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4.17	.89	4.16	.87	.06	4.58	.62	3.88	.92	4.83**
	총점	3.89	.62	3.96	.64	-.57	4.12	.49	3.79	.67	3.05**

* $p < .05$, ** $p < .01$

2.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유아의 놀이성, 자기 조절,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자기 결정력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자기 결정력 총점과 유아의 놀이성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유아의 자기 조절의 총점과 자기 통제,
이중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 조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 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자기 조절의 총점을 계산할 때는 충동성을 역채점하였다.

<표 4>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연령과 자기결정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 통제하고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놀이성의 총점을 독립변수로 입력을 하고 유아의 자기결정력의 총점을 종속 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00~1.35)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5.44, p<.001$). 각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beta =.36, p>.001$), 놀이성($\beta =.35, p>.001$), 자기조절($\beta =.26,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놀이에 참여하며 몰입하고, 자기조절을 잘 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유아의 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놀이성, 자기결정력의 간의 상관관계 (N=1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유아																							
1. 유아 성별	1																						
2. 유아 연령	-0.17	1																					
3. 주도적 참여	.10	-0.01	1																				
4. 인지적용통성	.10	.00	.88**	1																			
5. 즐거움의 표현	-0.06	-0.03	.83**	.82**	1																		
6. 자발적몰입	-0.03	-0.04	.84**	.80**	.81**	1																	
7. 놀이성 총점	.03	-0.02	.94**	.96**	.92**	.94**	1																
8. 자기통제	.23**	.10	.33**	.30**	.012	.23**	.28**	1															
9. 이중성	.22*	.17	0.16	0.14	-0.01	0.08	.10	.79**	1														
10. 충동성	-.27**	-.33**	-.05	-0.01	.15	0.04	.04	-.68**	-.71**	1													
11. 총점	.28**	.22*	.21*	.17	-0.01	.12	.13	.92**	.92**	-.88**	1												
12. 인지적 자아존중감	.00	-.12	.24**	.30**	.012	.28**	.25**	.015	.017	.02	.11	1											
13. 사회적 자아존중감	-.09	-.43**	.006	0.05	0.06	0.14	.08	-0.002	-0.03	.21*	-.09	.40**	1										
14. 신체적 자아존중감	-.02	-.37**	.20*	.19*	0.16	.18	.20*	0.09	0.04	.16	-.01	.34**	.52**	1									
15.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03	-.40**	.012	0.07	0.03	0.11	.09	0.1	0.07	.02	.06	.41**	.65**	.49**	1								
16. 정서적 자아존중감	.02	-.45**	.017*	0.15	0.15	.18*	.17	0.05	0.02	.12	-.02	.43**	.64**	.62**	.67**	1							
17. 자아존중감 총점	-.04	-.46**	.19*	.18*	.13	.23*	.20*	.09	.06	.14	.01	.63**	.84**	.79**	.82**	.86**	1						
18. 자기 결정 행동관련 지식	.15	-.12	.53**	.56**	.33**	.53**	.53**	.53**	.39**	-.18*	-.41**	.37**	.13	.30**	.22*	.24**	.31**	1					
19.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11	-.07	.54**	.53**	.37**	.52**	.52**	.44**	.41**	-.13	.37**	.38**	.14	.31**	.23*	.25**	.33**	.83**	1				
20. 자기결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 지각	.05	-.08	.48**	.49**	.31**	.53**	.48**	.39**	.37**	-.10	.32**	.33**	.19*	.31**	.23**	.26**	.33**	.77**	.85**	1			
21. 교육기관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06	-.45**	.23**	.19*	.18*	.24**	.23**	.10	.00	.15	-.02	.29**	.44**	.50**	.52**	.58**	.42**	.47**	.50**	1			
22.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수행 기회	.00	-.40**	.25**	.17	.11	.21*	.20*	.22*	.06	.04	.10	.27**	.37**	.48**	.51**	.55**	.52**	.49**	.49**	.48**	1		
23. 자기결정력 총점	.06	-.27**	.50**	.46**	.31**	.48**	.46**	.40**	.29**	-.16	.28**	.39**	.31**	.46**	.42**	.44**	.51**	.84**	.86**	.85**	.79**	.88**	1

1. 아동 성별¹⁾, 2. 아동 연령²⁾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 (성별: 1= 남아, 2= 여아)

*p<.05, **p<.01

<표 5> 유아의 자기 결정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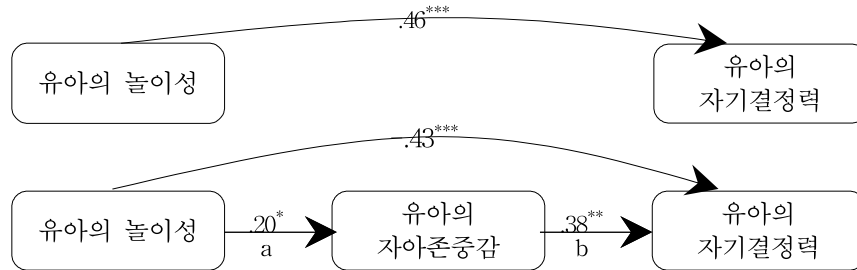
(N=126)

	유아의 자기 결정력			
	Model 1		Model 2	
	<i>B</i>	β	<i>B</i>	β
유아의 연령	-.33	-.26**	-.18	-.15
자아존중감			.87	.36***
자기조절			.31	.26***
놀이성			.21	.35***
R ² (수정된 R ²)	.070(.062)		.46(.44)	
R ² 변화량			.39	
F	9.32**		25.41***	

p<.01, *p<.001

3.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Seo, 2003; 이경하, 2009: 86-98 재인용)를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각 분석단계마다 다음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a),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c).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b),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c)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c')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이때, (c')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c')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더라도 (a)와 (b)가 유의하고 (c)에 비해 감소하였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Seo, 2003; 이경하, 2009: 86-98 재인용).



[그림 1]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의 관계 가설 모형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표 6>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 효과 검증 결과 (N=126)

		변인	β	R^2	F
1단계	a : 독립->매개	놀이성→자아존중감	.20*	.04	4.93*
2단계	c : 독립->종속	놀이성→자기결정력	.46***	.21	33.55***
3단계	b : 매개->종속	자아존중감→자기결정력	.38***	.39	39.98***
	c' : 독립->종속	놀이성→자기결정력	.43***		

*p<.05, ***p<.001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자기결정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유아의 놀이성이 독립변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하고, 둘째는 유아의 놀이성이 독립변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종속변인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0, p<.05$). 둘째, 유아의 놀이성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6,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8, p<.001$),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인인 유아의 놀이성을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만($\beta=.43$, $p<.001$), 두 번째의 비표준화계수에 비해 감소하여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자기결정력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차이와 영향력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결정력,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유아는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며 유아가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즐거움의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조절에 있어서도 대상 유아들은 충동성은 낮게 나타나고, 자기통제 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또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행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고, 가족에게 느끼는 행복감과 부모로부터 느끼는 애정과 관심에 대한 가족 수용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그리고 자기결정력의 경우 자기결정행동 수행 능력, 자기결정 행동 관련지식과 자기결정 수행을 위한 지식과 능력지각, 집에서의 자기결정행동 수행기회, 교육기관에서 자기결정행동 수행 기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자기결정력 총점과 유아의 놀이성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자기조절의 총점과 자기통제, 이중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 놀이성, 자기조절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력과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끈기있게 노력하며(성은현, 2005) 책임감이 있을 뿐 아니라(김희화,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자기결정

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최혜주, 문수백, 2012)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결정력과 자기조절력의 경우,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에 적극적이며 자기결정감이 높아야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이미봉, 2003)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유형일수록 인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일 뿐 아니라 자기조절을 통한 내적 동기에 따라 인지전략은 학업성취에 대해 유의하며(이은주, 2001; 조현철, 2003) 학업동기의 자율성 개념 측면에서 과제에 대한 흥미를 전제로 하는 내적동기가 성장될수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행동을 결정해 준다(Deci & Ryan, 1985)고 하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력과 놀이성의 경우, 놀이 중 발생하는 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타인의 목표를 더 잘 이해하고 결정의 경험이 많아지며 선택에 대한 개인적 준거를 가지게 되고 갈등상황에서도 더 많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박지영, 2012). 그리고 놀이의 과정에서 목표를 수정하거나 동기가 생길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시작하며(이성희, 2009) 놀이의 과정에서 동기화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받을 때 결정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황윤세, 2013)들은 자기결정력과 놀이성이 관계있음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놀이에 참여하며 몰입하고, 자기조절을 잘 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의 지각이나 태도(임연진, 안효진, 2008)로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태도이고 놀이자의 내적특성이므로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 정서의 표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윤세, 이혜원, 2005; Barnett, 1991)는 자신과 관련된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지각이 유아의 행동, 감정, 동기 및 대인관계와 적응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최미숙, 강은영, 최명희, 2009), 자기지각은 유아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또래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발달하며 유아에게 능력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놀이의 과제 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박선미, 2011). 또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즉 또래지지와 관련할 때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할 경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를 갖게 된다(김연희, 박경자, 2001)는 연구들은 자기지각에 따라 놀이성에 따른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또래와의 사회적 적응기술과 효율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자율성에 따른 놀이의 선택과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놀이성은 자기결정력을 형성하고 향상하는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의 변인과 자기결정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기결정력에 대해 실패에 부딪쳐도 자책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조정하고 더욱 노력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은 놀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자기평가가 또래수용, 자아수용 등 또래들 간에 수용되는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며(이정화, 최인수, 이수련, 2010),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정희선, 박성연, 2010). 이처럼 자기결정력은 유아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적 영향력을 미치기에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매개요인인 자아존중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곧 자기결정력의 증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는 자율적 놀이를 위한 활동의 주체로써 자신의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자아존중감의 근원(김문혜, 강문희, 1999)이 될 것이기에 자기조절력을 통해 또래 속에서 조절된 자아를 반영하는 등 자기결정력과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난 본 연구에 따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유아의 내적동기에 따른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주도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상호호혜적인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 대한 요인의 영향력만을 연구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성요인들이 연구됨으로써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호혜적이고 순환적인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에 있어 만4,5세로 국한된 대상에서 보다 확장된 연령층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어린 시기의 영향력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부모의 변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강민주, 심미경(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203-216.
- 고윤지, 김명순(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한국아동학회**, 34(1), 175-189.
- 고현경(2010). 만 4,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 김문혜, 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희, 박경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희화(2009).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6(7), 127-147.
- 나옥선(2009). 유아 주도적 그룹게임이 주도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가에(2009).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숙렬(2002).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경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빈, 권혁민(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1), 1-17.
- 박지영(2012). 교사용 유아 의사결정력 검사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수현(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현(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217-228.
- 오숙현(2005). 자기표현활동이 유아의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65-183.
- 윤인숙(2012).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봉(2004).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이석영(2009).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희(2008). 만5세반 유아의 자유선택활동시 의사결정 상황과 반응.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277-298.
- 이수영(2012). 자기결정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적용 논문의 유목별 경향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순, 정영숙, 이기영(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41-63.
- 이은주(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 이정화, 최인수, 이수련(2010). 유아의 인지수준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 사회적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2), 17-34.
- 이혜주(2008).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29(3), 273-288.
- 임연진, 안효진(2008).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친사회적 행동 수준에 따른 놀이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1), 1-14.
- 임지현(2007).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동기유형과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희선, 박성연(2010). 가정 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9-33.
- 조현철(2000). 자기결정력 학습동기의 학습전략과 학습활동에 대한 관련, **교육학연구**, 38(1), 95-121.
-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논집**, 7(1), 43-67.
- 최미경(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2), 105-121.
- 최미숙, 강은영, 최명희(2009). 유아의 마음이론과 자아존중감 및 조망수용능력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195-218.

- 최혜주, 문수백(2012).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435-451.
- 허윤선(2006). 유아의 놀이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희(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영(2008).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조화적합성이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윤세(2013). 놀이 계획-실행-평가 활동에서의 유아의 의사결정력: 혼합연구방법론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19-39.
- 황윤세, 이혜원(2005).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6), 335-349.
- Arce, E. M. (2000).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An introduction*. NY : Delmar.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rryberry & Rothbart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Field, S.& Hoffman, A(1996). Steps to Self-Determination: A Curriculum to Help Adolescents Learn to Achieve Their Goals. *Austin, TX: Pro-Ed*.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87.
- Harter, S. (2006). The self.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05-570). NJ : Wiley.
- Hoffman, M. L. (1984). Empathy, its limitations and its role in a comprehensive moral theor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283-302). New York: Wiley.
- Grolnick, W. S., & Apostoleris, N. H. (2004). What makes parents controlling?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s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162-179) Rochester: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Ryan, R. M. & Deci, E. L. (2002).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eo, S. (2003). Maternal self-efficacy,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Early Head St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Wehmeyer, M. L.(1997). Self-determination as an educational outcome; A definition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Development and Physical Disability*, 9(3), 175-209.
- Whiteman, T. L. (1990). Self-regulation and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4), 347-362.
- Wolman, J., Campeau, P. L., DuBois, P. A., Mithaug, D. E., & Stolarski, V. S.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schoolers' levels of playfulness,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on their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mediational effects of the children'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layfulness and self-determination. To me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126 preschoolers aged 6-7 years old who attend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were sampled. Data on the preschoolers' self-esteem, self-regulation, and self-determination were assessed by their teachers, and their playfulness was observed by one of the researchers in this stud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young children's self-determination was found to be their levels of self-esteem. Also, the preschoolers'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the playfulness on their self-determina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playfulness, self-regulation, self-esteem*

논문투고	2013. 08. 22.
수정원고접수	2013. 10. 04.
최종게재결정	2013. 10. 22.